

FAX

Post/it

|                     |                |
|---------------------|----------------|
| 발송메수: 3 매           |                |
| 수신                  | 발신             |
| 성명: 박영숙 이사장님        | 성명: 한국여성재단     |
| 회사:                 | 회사:            |
| 부서/참조:              | 부서:            |
| 팩스 #: 02033-1015809 | 전화 #: 695-6364 |

## 교보생명 인터뷰건

- 시간 : 2005. 4. 7(목) 16:00 ~ 17:00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인터뷰 내용은 아래를 참조 바랍니다.

\_\_\_\_\_ 아 \_\_\_\_\_ 래 \_\_\_\_\_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보생명이 새 사업년도 출발과 더불어 고객만족 경영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한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를 준비 중에 있어 외부인사 여러분께 그와 관련된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차 4월 13일(수) 저희 회사 천안 연수원(계성원)에서 거행되는 '경영전략회의'에 즈음하여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으신 외부인사분의 고견과 메시지를 전 조 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비록 영상물로 전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많은 경륜과 탁견이 있으신 박영숙 이사장의 말씀은 새사업년도를 출발 하는 저희 교보생명 임직원에게는 무엇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lt; 주요 질문 예시 &gt;

- 당사는 지난해 고객만족경영대상 5년 연속 수상과 금융회사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향후 이에 걸맞는 고객만족 실천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보생명 임직원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난해 교보생명이 고객만족경영대상 5년 연속 수상과 금융회사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을 보고 지난 3년간 꾸준히 교보생명 사회공헌 파트너로 활동해온 여성재단 이사장으로서, 또 개인적으로는 교보생명을 아끼는 고객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기뻐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교보생명과 여성재단이 기업사회공헌의 파트너로서 활동해오면서 교보생명 임직원분들이 고객 한분한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교보생명이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이 전혀 새삼스럽지 않았습니다. 교보생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만났던 교보생명 임직원분들은 기업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직접 수혜를 받는 파트너들이 실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진지하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듣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줄 자세가 이미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교보생명이 가진 경영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객의 욕구를 정확히 이해  
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상 후  
경영이념인  
우리 사회의 공익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면, 전 직원이 갖는 고객만족 실천에 대한 의지를 아마도 교보생명 고객들도 똑같이 느끼고 감동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교보생명에게 고객만족은 기업이 상시적으로 외치는 단순 구호가 아니라, 이미 사람을 아끼고 또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온 행동양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행동양식을 교보생명 임직원분들이 끝까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새 사업년도 출발을 앞두고 당사는 더욱 고객에게 인정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의 꾸준한 실천을 위해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교보생명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기업사회공헌활동의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교보생명의 고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좁은 개념의 상품 구매자나 계약자로 규정하고 있는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매번 감동을 받아 왔습니다. 작은 기업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고객이 당장의 상품 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 그 한사람의 고객만족 경영을 구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보생명은 달랐습니다. 교보생명이 지금 기업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진정 교보생명의 고객은 좁은 의미의 상품구매자로서의 고객을 넘어서서, 그 고객 한분한분이 위치한 지역사회, 또 더 나아가서 그 지역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 전체사회를 구성하는 국민 모두가 고객이라는 큰 경영의 관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은 우리 고객을 한분한분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 우리 전체사회가 어떤 요구들을 갖고 있는지 민감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교보생명이 하고 있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들, 직접 교보다솜이 봉사단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문화나눔사업, 자원봉사활동 등등 이런 맥락에서 넓게 보면 더불어살아가는 사회, 건강하고 따뜻한 세상에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정 고객을 생각하는 활동들인 것입니다. 진정 깊이있는 고객만족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있다는 교보생명의 신념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 당사는 고객이 역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도록 교보인의 비전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교보생명에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 질문은 위아래의 대답과 일맥 상통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어떨까요?

항상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주인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 - 해결에 앞장서는

매년 24시간 Partnership으로 함께  
친사회적 책임 실천

수익과 이익이 아닌  
나눔과 나눔이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힘  
리얼리베이션  
Mind  
= 교보생명의  
정신  
교보인이 만들어낸  
교보문화  
사회공헌 활동  
은혜를 베풀어  
드려주세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웃사랑 사회공헌  
84년 24시간  
매일 24시간  
당신의 공헌이

- 새 사업년도를 출발하는 시기에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더욱 고객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보생명이 단순히 고객에게 상품을 파는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보에는 이해타산 없이 고객에게 먼저 베푼다는 정신, 교보만의 FP(Financial Planner)-Ship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임직원분들은 한 기업의 교보생명이 갖고 있는 비전처럼 고객 한분한분에게 다가갈 때 어떤 이해타산없이 "모든 사람들이 삶의 역경을 극복하여 보람있는 인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나눔의 전령사들입니다. 저는 이 자부심이 교보생명 임직원분들께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한분한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 크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를 건강하고 밝은 사회로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고객을 만나실 때 여러분들 마음 속 깊이 자리한 그 나눔의 기쁨이 고객 한분한분에게 진실되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보생명을 아끼는 고객의 한사람으로서 늘 가까이서 힘찬 응원 보내겠습니다. 교보생명 임직원 여러분들, 화이팅!!!

나눔의 전령사들이 나눔을 실천하는 곳

교보의 기나이들이 전하는 사랑 - 지극한 이해

교보인의 따뜻한 배려로 고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일체로 뜻을 모아 힘을 합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생과 노력, 나눔의 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국민의 칭찬을 해주는 하얀 봉투를 받는다

2422

고개 언덕 160억 대수용 5(3024)수용

그동안의 최후로 명예의 위상에 해당하는 영광을 얻으라

여학생내란의 일면

기아세리 공헌의 Partner

12. 2월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이제부터 겪는 단점들 - 상냥의 문제점 - 생명 공동체 치행

— 458 22223 7191

저는 평생 동안 미움해가 잊고 있는 사람을 이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모하기를  
대답하는 마음 보듬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억해 두어야 할 점: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영혼으로 묶여 있어 서로 알고 행동하  
는 일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

노마디의 이 물

나만의 생각대로 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최선

[illegible]

신뢰할 수 있는 친구

U.S. Service Man of

个位数字  $\rightarrow$  20161121 202602

이 비가 행방이 불로한것 — 편보이 갖는 심성이요 이의 비가 행방이다  
편보이 갖는 심성이요 편보이

경양이던 속한 교향악  
구스타프 클로프와 스칸 102  
기타스 클로리 바그

교수님,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양쪽의 해상 연구에 앞장서길  
바라<sup>2</sup>구상하는 능력

고향이 옥강에서 재향하니 <sup>이</sup>향고 <sup>그</sup>분향가 933  
하느님 보신 1433에 대한

〈인생의 지혜〉 (서지영) 1권

신라국<sup>2</sup>의 영강국<sup>2</sup>을 돕는다. 기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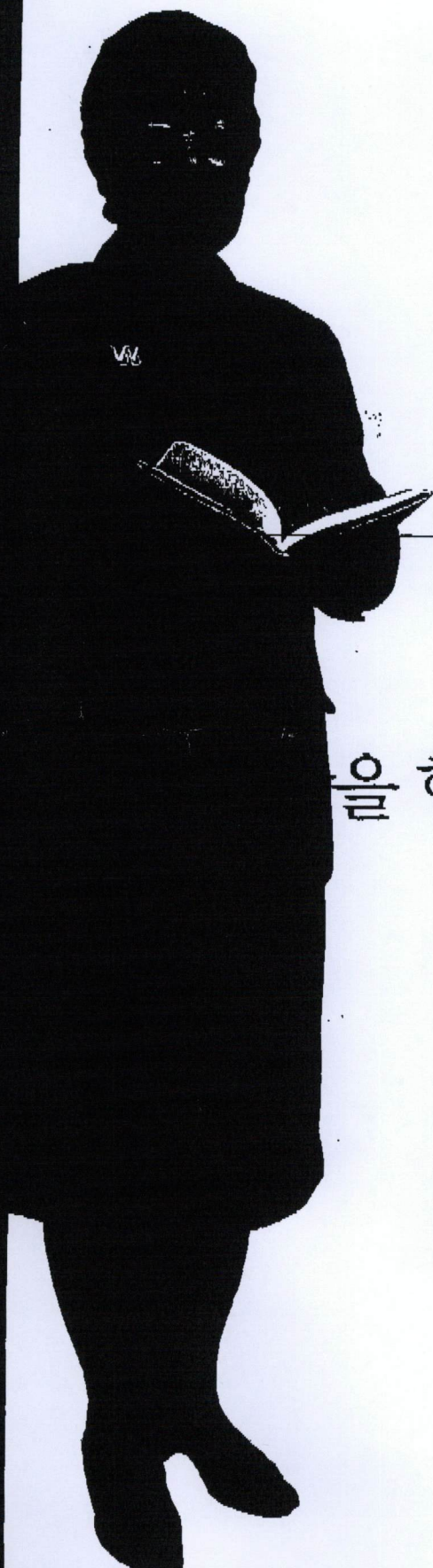
$$\text{이차 평면 } \pi \text{ 의 이차 형식 } \rightarrow \text{ 직선, 점, 원}$$

2012년 12월 20일

슬라이딩 오브 2V — 04560mm 02%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습관 형성의 비결

두정동에서 사랑의 공동체까지



박영숙 - 사회영향력인사관

## 을 향한 파트너십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은 사회구성원들의 요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 등의 추세로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회문제들이 분출하고 있어서 종래처럼 정부만의, 또는 기업만의 기능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상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파트너십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의 체제도 통치(government)에서 파트너십에 의한 협치(governance)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파트너십이란 영역간의 제휴를 통해 다양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활동방안으로 국제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파트너십의 강점은 각 부문이 답지하고 있는 특기, 자원, 전문성 등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영향력을 크게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바람직한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파란 신호등이 켜졌다. 기업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체 조직내부에 사회공헌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고 임직원

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가 하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아낌없이 내놓음으로써 사회공익에 이바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근래에 와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적인 증가와 함께 활동의 내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종래의 활동성격에서 환경문제, 인권문제, 평화문제를 포함한 사회의 제반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재정충당의 문제이다.

근래에 와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금까지의 관례처럼 시민단체에게 금전제공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과 공동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보다 가깝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과 파트너가 될 시민단체 선정도 기업이념에 따라 하게 된 것이다. 대개의 경우 민간재단과 같은 중간 기구를 통해 개개의 시민단체와의 연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단체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교보생명에서는 2002년 12월 11일에 <교보 다솜이> 사회봉사단을 창단하여 사람들의 역경극복을 돕는다는 기업이념에 따라 사회 공헌사업의 사명을 건강, 돈, 지식의 결핍으로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정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교보 다솜이 사회봉사단장인 신창재 회장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아직까지 사회적 약자에 머물러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된 것은 여성들의 잠재력을 깨우고 키우는 것이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는 신념을 기획 있을 때마다 표명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창재 회장은 교보생명 사회공헌사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기업운영의 원칙을 적용해서 그 생산성을 냉정하게 따진다고 한 바 있다.

교보생명은 평등세상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파트너로서 말뿐도 아들과 함께 21세기 한국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여성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여성재단을 선택하였다. 교보생명은 4000여개의 여성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는 여성재단을 통해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지원을 시작으로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사업과 전국의 여성단체 활동이 필요로 하고 있던 빌프로젝터 공급 등의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

특히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사업은 활동비에도 못 미치는 박봉과 인력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로 심신이 소진된 여성공익활동가들에게 피로회복과 재충전 그리고 활동가로서의 비전을 재정립하며 연대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금년도에는 교보생명이 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여성운동계는 고무되어 있다. 여성재단이 바라기는 이 사업이 교보생명과 여성재단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평등사회를 지향한 파트너십>사업으로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에 필요로 하는 여성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보생명과 여성재단의 평등사회를 지향한 파트너십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그 근거는 파트너십의 성공요건인 양기구의 분명한 이념과 성숙한 지도력,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특히 교보생명이 중간기구인 여성재단을 파트너로 한 점이 교보생명의 여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의 내용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 활동의 정체성 유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양 기구가 수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의 마련도 유용할 것이다.

앞으로도 교보생명은 여성재단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 부문의 시민단체들과 다양한 과제를 수행할 파트너십 구축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모든 사람들이 삶의 역경을 극복하여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러한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는 교보생명은 우리사회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되기에 족하다.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교보 다솜이 봉사단원과 교보생명의 임직원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희망을 심는 교보인의 사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항상 사랑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흔히 나누는 'God bless you' 라는 인사말의 'bless' 라는 단어도 원래는 'bleed(피를 흘리다)'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이란 자신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얻게 됩니다.

교보생명은 고객과 임직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만약 기업하는 목적을 이윤추구 그 자체에 둔다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기업이 먼저 고객에게 베풀고 나누다면 이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고객만족을 위해 성실히 일하면서 동시에 자선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고 베풀다 보면 회사도 행복해지고 베풀 자의 넉넉함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보생명은 한국전쟁 이후 조국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당장 먹고 사는 것의 가치만이 중요시되던 시기에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창업했습니다. 교보생명은 창업이후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 중심 가치를 두고 지난 45년간 건강, 돈, 지식 등의 결핍으로 인해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람들의 소중한 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외국처럼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공헌활동이라는 말을 흔하게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자체에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기 편한 방식으로, 또는 하고 싶은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 단장으로서 우리의 사회봉사활동도 정말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즐겁게 했을 때, 영리사업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사업의 생산성도 최대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고객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보살피면, 만족한 고객이 단골이 되어서 회사에 이익을 돌려 주는 것처럼, 임직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할 때, 소외된 이웃들이 정말로 원하는 부분이 발견되고, 또 그러한 자원봉사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 그 봉사활동은 모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사업과 자원봉사 활동이 건강, 돈, 지식의 겉핥음으로 삶의 역경을 치한 사람들에게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실천하여 존경 받는 기업이 되고, 그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 직장, 자기 직업, 자기 인생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성숙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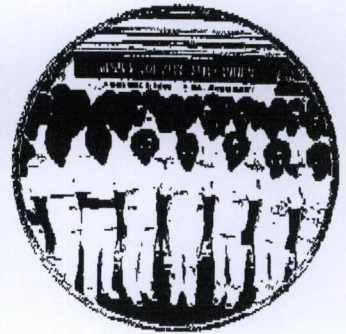
여기에 소개되는 교보생명의 사회공헌 이념과 철학, 여러 사업과 활동들이 타 기업, 주위의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저희는 기업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게 되고 더욱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2004. 8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 신창재

신창재



##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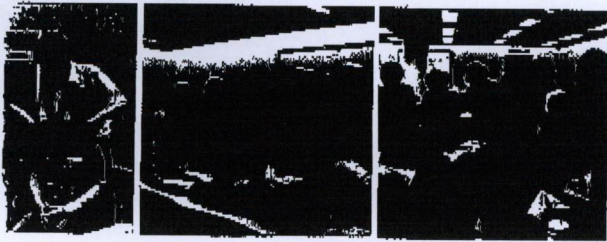
목이 메인 듯 몇 번을 울먹이시더니 힘겹게 이야기를 꺼내셨다.

"전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4번의 다리수술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병실 천장안을 바라보면서 지내야 했던 3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구들한테는 짐만 되는 것 같았구요..." 환자분은 지난날들의 힘든 상황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다. 제 그랬나듯 옆에서 손을 꼬옥 잡아주는 간병봉사자와 빙그레 웃으셨다. 강남성심병원에 입원중인 이 환자는 요즘 외롭거나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낮에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 항상 말벗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는 간병봉사단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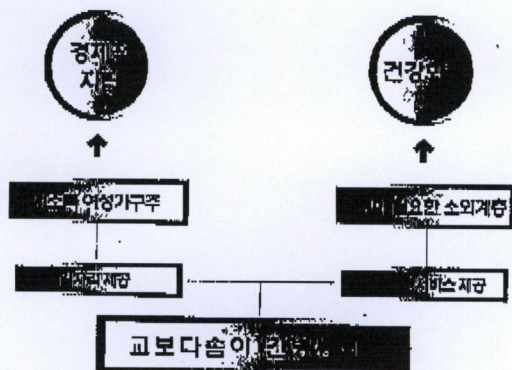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정할 바에 따르면 목욕, 식사, 대소변 보기 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간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7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만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간병서비스를 하는 업소가 4,900개 있지만 대부분 유료여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처럼 간병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환경의 여건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의탁 환자, 장애인, 행려한자, 국민기초급자 가구 등 저소득 환자에게 간병서비스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스러운 병마도 힘들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사람들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이다.

또한 저소득 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소외된 이웃들이 역경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저소득 여성의 소득창출 및 지속적인 일자리 보장과 의미 있는 노동을 하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병인들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고 생계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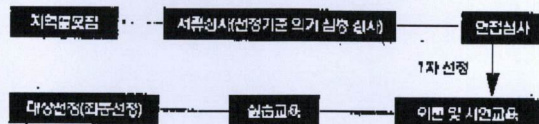


### ●●● 교보다솜이 사업개요



### ●●● 간병봉사자 선발 기준 및 과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기존 간병사업 및 교보다솜사업 참가 경험에 있는 자 중 의료보험수가,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우선 선발



### ●●● 수혜대상자 선발 기준

- 보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가족 부양의무 등의 제도적 한계로 보호 받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독거노인 및 무의탁환자
- 의료보호 1, 2종 중 장기입원으로 12시간, 24시간 간병을 요하는 환자 중 병원내 의료사회사업가나 관련업무 담당자가 추천한 환자
- 열려져, 노숙자, 지역의료보험가입자 중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 계층

###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서비스 신청 및 문의

- 서울/경기 : 02-338-3994
- 대구 : 053-426-8330
- 대전 : 042-223-1998
- 광주 : 082-233-1474
- 부산 : 051-502-2019

##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 운영

2003년 발족한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은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 실직 여성들에게 전문 간병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형편 때문에 고통 받아야 하는 소외계층 환자들에게는 무료 간병서비스로 삶의 외자를 심어주는 사업입니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은 저소득 여성가족들을 소정의 간병교육과정을 통해 간병인으로 양성한 후, 간병인이 필요하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교보생명에서는 간병인들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무료 간병서비스를, 저소득 여성가족들에게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의미있는 사업입니다.

2003년 20여 명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환자 연 3,700여 명에게 12~24시간에 이르는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했으며, 2004년 무료 간병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증대로 70여 명으로 간병봉사단을 확대 구성하여 전국에 연15,000여 명 환자에게 무료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은 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지역에 각 지부를 두고 간병인 보수교육과 간담회,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질적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58개 병원(서울경기지역 18개소/ 대전 10개소/대구12개소/광주 7개소/부산 9개소)에 교보다솜이 간병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 소아암 어린이 지원

"앞으로 넉 달 이내에 조혈모세포(골수)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데... 제대로 꽃봉오리 한번 피워보지 못한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소아 백혈병의 일종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앓고 있는 열 살 된 아들 때문에 하루하루 애만 태우는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가 들린다.

소아암 어린이의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시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평균 8,000만원에 이르고 입원비만 해도 1,000만원에 이르는 등 장기간의 치료 및 고액의 치료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면 원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가슴 아픈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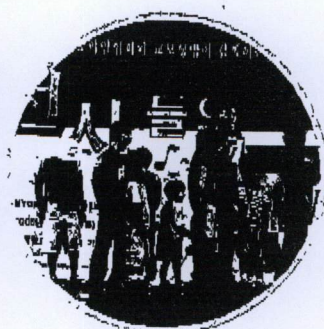
교보다솜이 사회봉사단은 참단 이래 건강, 노후 생활, 교육복지 분야를 핵심사업영역으로 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그 중 건강분야의 역경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아암 어린이 지원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선정해 치료비 지원, 인터넷 학습실 지원, 어린이 병원학교 건립/운영 지원, 천사들의 여름캠프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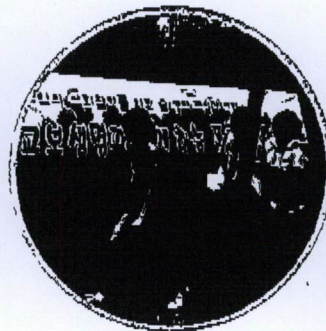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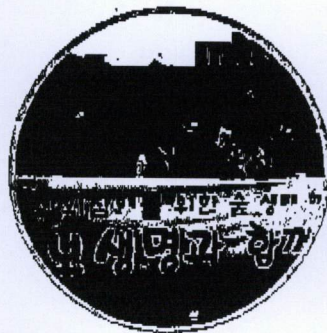
## 교보생명 어린이 병원학교 오픈

교보생명은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교보생명 어린이 병원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교보생명 어린이 병원학교는 부산대 병원 인근에 위치한 지상 3층, 연면적 100평 규모의 학교로 '새 생명의 집' 내에 자리잡고 있으며 소아암 환자 그리고 가족들의 헌터인 사랑의 보금자리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7일 거행한 교보생명 어린이 병원학교는 초, 중, 고 과정이 마련된 대한 학교로 장기간 치료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소아암 환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이와 같은 어린이 병원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순차적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 2003 천사들의 여름캠프

2003년 천사들의 여름캠프는 3년째 거듭되어 오는 행사로, 소아암 백혈병을 가진 많은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키워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예년에 비해 혜택을 받은 병원이 더욱 늘어났으며,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을 위해 공연관람, 롯데월드 놀이시설 방문 등 문화생활을 즐기는 기회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행사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이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의지를 심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퇴생활 지원 프로그램

## ‘교보다숨이 숲해설 봉사단’

푸르른 나무들이 우거진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숲 속에...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는 모두 참나무라 부르지요? 실제로 도토리 종류는 토종만 6종이 나 됩니다. 나무들도 각기 달라 굴참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가 있어요” 모든 도토리가 참나무에서만 나온다고 알고 있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이 도토리를 보이시면서 참나무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다. 학생들도 평소에 몰랐던 질문 들을 선생님께 물어본다. 숲 속 자연에 대해 쉽게 알려주시는 선생님은 이 학교의 선생님이 아닌 하루 동안 학생들에게 숲의 식물들에 대해 얘기를 들려주실 「교보생명 푸른 숲 안 내교실」 숲 해설가들이다.

## 교보다솜이 숲해설 봉사단

교보생명명은 실버 세대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보다솜이 숲해설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보다솜이 숲해설 봉사단은 교원, 공무원 등 전문직 출신 은퇴 노인들을 숲 해설가로 양성한 후, 청소년들에게 자연생태교육을 전담케 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삶의 의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노후 역경 극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교보다솜이 숲해설 봉사단 교육 과정은 서울, 대구, 광주, 충주지역 등 전국 교육장에서 숲 전문가들에 의해 3개월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이 과정을 수료한 숲 해설가는 초, 중학교 정규 수업인 자연생태교육을 전담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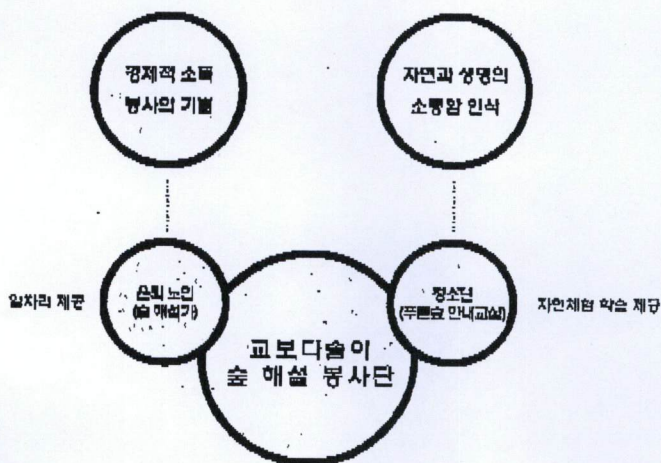
교보다솜이 숲해설 봉사단은 2003년 3월에 시작되어 은퇴노인 숲해설가 250명을 배출하였으며, 참여 청소년은 연 28,314명으로, 치열한 입시전쟁으로 점점 삭막해지기만 하는 아이들에게 숲을 몸소 체험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004년 '교보다솜이 숲해설 봉사단' 사업은 사업의 공익성과 효과성을 인정 받아 은퇴노인 숲해설봉사단을 1,000명으로 확대하여, 정부-NGO-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협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 푸른 숲 안내교실'이 서서히 알려지면서 '교보생명 푸른 숲 안내교실'을 정규수업으로 편성하기를 희망하는 학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 수 있어 좋고, 산에 다녀서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다"는 숲 해설가들의 즐거운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사회봉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의욕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삭막한 도시 속에서 치열한 경쟁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숲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상생의 이치를 일깨워 주는 '교보생명 푸른 숲 안내교실' 그 소중한 가치가 널리 전파되어 건강한 사회,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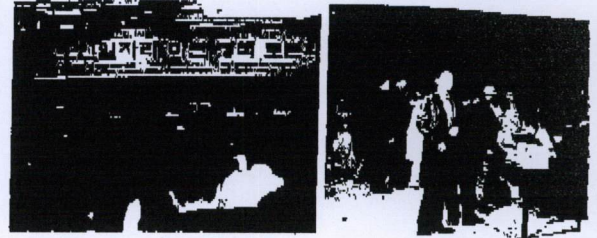
### ●●● 교보다솜이 숲해설 봉사단 문의

- 한국노인인력지원기관협회 02-747-5508



## ‘고령자 일자리 정책 토론회’ 후원

교보생명은 실버세대들의 일자리 마련과 노년층의 취업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2003년 11월 24일 개최된 노인 일자리 마련 토론회를 후원하였습니다. 은퇴 노인들에게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사)한국시니어연합, (사)한국지역사회시니어클럽협회가 공동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 Hi-Seoul 실버취업박람회 후원

교보생명은 실버세대들의 일자리 마련과 노년층의 취업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2003년 5월과 10월에 개최된 'Hi-Seoul 실버취업박람회'를 후원했습니다. 은퇴 노인들에게 활기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행사에는 실버세대 20,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실버세대의 높은 취업욕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